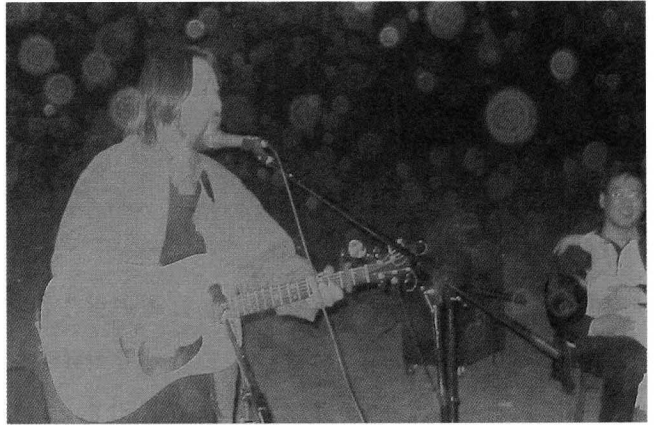


# 책 마을 에 나무 심는 사람 들



한승태\_영월 책 박물관/에니메이션 박물관 학예연구사

가수 이성원 씨의 공연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에는 프랑스의 산골에서 숲을 굽던 사람들로 산이 황폐화된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말없이 나무를 심는 노인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결국 노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몇 십 년 뒤 마을은 나무가 우거지고 우물엔 다시 물이 샘솟고 계곡에는 시냇물이 흐른다. 떠났던 사람들은 어느새 돌아와 숲의 풍요로움을 즐긴다.

문화는 나무 심는 것과 같다. 심는다고 금방 자라지 않는 것이 나무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나무를 심지 못한다. 나무의 그늘을 자신이 즐기려는 사람은 나무를 심지 못한다. 몇 십 년 후를 바라보며, 다음 사람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나무는 자라는 것이다.

5월 3일 오전 11시, 급한 마음과는 달리 국도변에는 만발하는 조팝나무 꽃들이 바람에 한가로이 흔들린다. 봄치고는 꽤 더운 날씨다. 띄약밖에 몇 시간만 서 있으면 일사병이라도 걸릴 지경이다. 햇볕의 기운에 단내가 난다.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천막 문제가 막바지까지 큰 골칫거리였다. 비라도 오면 어찌나, 에이 그냥 비 맞으면서라도 하자, 하고 오기를 부러보기도 했는데, 다행히 천막도 해결되고, 날씨도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서양 속담도 있는데 조짐이 좋다.

박물관으로 가는 차는 어느새 산림을 지나 황둔에 접어들다. 그곳은 오가며 쯤빵을 사 먹는 곳이다. 그 맛이 일품이다. 서양식 빵에서 느낄 수 없는 구수함이 배어 있다. 영월 책 축제와 영월 책 박물관은 쯤빵과 같다.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그곳에서는 우리 문화의 구수함과 진솔함이 배어난다.

길은 우리에게 많은 말을 건다. 지난날에 잊었던 풍경을 떠올리게 해주고, 친구와 추억들, 당장의 급한 일들을 걸러주며 천천히 느긋하게 살라고 속삭인다. 당마루 휴게소를 지나 오른쪽 언덕 위로 숲이 보인다. 길이 오른쪽으로 꺾이자마자 책 박물관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그런 지형적 위치 때문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매번 지나치고 만다. 계단 앞에 조그만 간판은 이곳이 책 박물관이라고 알리기보다는 ‘좀더 가세요’ 하는 것 같다.

위로 뻗은 계단을 오르면 하늘이 넘실거린다. 지난해 마른 풀 사이로 제법 연둛빛 풀들이 자랐다. 숲이 턱에서 가롱거릴 즈음 폐교의 교사가 지붕부터 눈에 들어온다. 운동장 좌측으로 캠프파이어용 장작이 쌓여 있고 천막 다섯 동이 세워졌다. 영월군이라는 마크가 선명하다. 저 천막 때문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던가. 눈물이 날 지경이다. 아직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나는 먼저 사무실-사무실이라야 호산방 서점이다에서 행사일정표를 챙긴다. 내가 사회를 맡기로 했다. 그리고 초대 손님들의 숙소예약 현황을 챙긴다. 이 조그만 ‘골말’에 사람이 북적인다. 앞으로 이곳이 책마을로 조성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을까? 책 박물관의 계획은 골말, 뱃말, 마지라오, 피골 등 주변 마을 일대를 책과 관련된 고서점과 전문서점, 화랑, 카페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박물관의 책마을 계획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설계 겸 석사논문이 하나 나오으로써 좀더 구체화되었다. 사람들이 모여들 날을 기다린다.

열화당 대표이며, 과주 출판문화단지 이사장인 이기용 사



김현주 씨와 송하륜 씨의 퍼포먼스



장구를 치는 이봉교씨

장과 가정문화연구소의 강학중 소장이 먼저 와 있다. 박물관 운영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다 지난번 도둑맞은 책 얘기가 나오자 내 일처럼 안타까워했다. 문화에 대한 저급한 인식,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우리 문화의 조각함 등이 사회와 가정에서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올해는 영월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참석했다. 그러나 관공서에서 하듯 줄줄이 돌아가며 지루하게 축하하는 것을 배제하고 싶었다.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계에 의미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 그분들도 소개하고 싶지만 책축제는 소박해야 한다.

오후 3시 반부터 '봄 처녀의 나들이'란 주제로 석고상과 청동상처럼 옷을 입은 김현주 씨와 송하륜 씨의 퍼포먼스가 박물관 입구의 계단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계단을 올라오다 깜짝 깜짝 놀란다. 석고상인줄 알았던 것이 움직이다 멈추고, 멈추었다 움직인다. 놀라던 사람들이 서로 사진을 찍는다. 퍼포먼스로 자연스럽게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게 축제는 시작된 것이다.

영월 책 축제는 서울이 아닌 영월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축제다. 투박하더라도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소박한 축제다. '정병규 디자인' 과 '김성구마임극단' '사진작가 김광수' '가수 이성원' 등 많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축제다. 그래서 더 의미가 깊다.

10분 만에 개막식을 끝내고 이봉교 씨의 소리를 한마당 듣고, 축제참가자들은 화가이며 송의여자대학 교수로 있는 김정 선생의 자료기증으로 이루어진 <영월아리랑 - 풀·깎·소리와 김정> 기획전시관으로 들어간다. 맨발에 조금씩 빼격이는 마룻바닥. 입에서 새어나오는 감탄, 다과를 나누며 잔 부딪는 소리, 사람들이

자연스레 인사를 나눈다. 김정 선생님의 미소처럼, 아리랑처럼 조용히 전시실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운동장에 벌어진 막걸리 판에 하나 둘 끼여든다. 역시 담근 막걸리 맛이 일품이다. 얼추 막걸리가 들어가고 사람들은 정선아리랑 무형문화재인 이현수 씨의 '영월아리랑'에 어갯것을 한다. 당마루 아저씨가 이현수 씨의 '회심곡'을 '서강아리랑'으로 받는다. 아리랑은 뱃말 할머니로, 세명대 가을 양의 '못살겠네, 못살겠네'로 이어지고 다시 박관장이 소리를 받는다. 다들 얼굴이 노을처럼 붉다. 박물관 뜰의 잔디밭에는 노랑고 작은 양지꽃들이 햇살로 화사하다. 꼭 운동장에 앉은 사람들이 그렇다. 운동장에는 150여 명이 앉거나 서성인다. 들꽃 같은 저들이 문화이리라.

어둠이 내리고 가수 이성원의 공연과 함께 캠프파이어가 시작되고 감자를 굽는다. 영월 산골의 책 축제는 소쩍새의 울음으로 더욱 깊어진다. 마을주민들은 십여 일 전부터 막걸리를 담그고 돼지를 잡았다. 환영사도 원래는 마을 이장님이 하기로 했으나 쑥스럽다고 내뺐다. 사실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주인이다. 술을 담그고 메밀 전을 말없이 부치는 아주머니들, 돼지를 잡는 이장님, 캠프파이어를 위해 장작과 감자를 나르는 아저씨, 이들이 축제를 박물관장과 같이 마련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박물관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저러다 서울로 가겠지, 하던 사람들이 해가 지날수록 박관장의 식구들과 박물관을 마을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기까지 박대현 관장의 나무 심는 노력은 계속되었고 지금도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이다. **★**